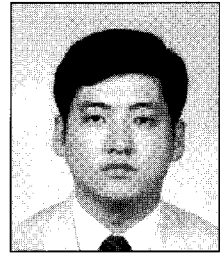


>>>

전문 포장인으로써 포장 발전에 일익 담당

포장인들간 교류 및 지식공유



김충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과장

이번 포장 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김충일 과장은 “우선 이번 포장기술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충일 과장은 홍익대학교 화학공학과, 동대학교 공과대학원 화학공학과 졸업한 후 (주)크린랩 연구개발부를 거쳐 현재는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기준제도연구실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충일 과장은 포장관련 제조업체 및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등에서 13년 간 실무를 쌓았으며 특히 위험물운송의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위험물포장과 물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장을 중심으로 검사 및 교육업무를 담당해왔다. 또한 “업무를 통해 얻은 기술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좋은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포장기술사 시험을 무난히 통과한 김충일 과장은 “합격에 대한 기쁨도 크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전문 포장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한다.

현재 저장 및 운송 중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포장용기가 파손되었을 경우 내용물의 누

출로 인해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물론 각종 관련법의 산재(散在)로 인해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화학제품 즉 위험물의 보관, 취급 및 운송에서 안전·환경 문제는 각종협약 및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

이에 김충일 과장은 “화학제품은 모든 산업의 기초산업이면서도 국내에는 위험물에 관한 포장 및 물류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때문에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 항공분야의 관련 종사자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충일 과장은 “포장기술인들간의 교류 및 지식공유를 통해 국내 포장산업 발전 급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에 이번 포장기술사 합격을 통해 지금보다도 더욱더 노력하여 포장 발전에 한 몫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전문 포장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전문 포장 기술사로서 국내 포장 산업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김충일 과장의 활약에 기대해 본다. ko